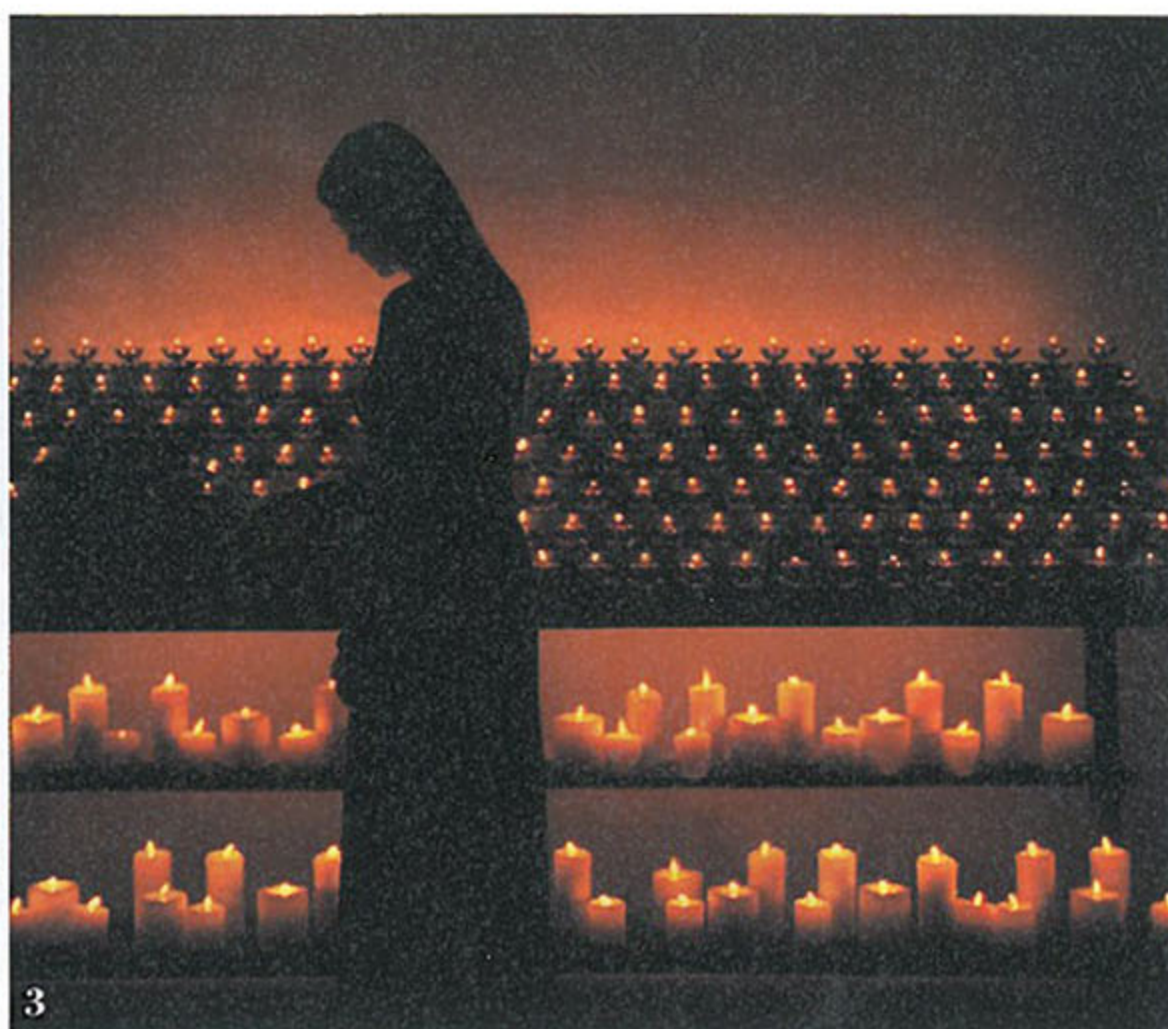


12
2
2
2
+ 0
1
1
1
2





- 1 <무제>(1949, 캔버스에 오일, 206.7×168.6cm
© 1998 Kate Rothko Prizel and Christopher Rothko | ARS, NY | SACK, Seoul).
- 2 신념을 위해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물의 순교자>(2014, 7분 10초, 배우: John Hay, 사진: Kira Perov).
- 3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탄생한 작품 <밤의 기도>(2005/2009, 18분 6초, 배우: Jeff Mills, Lisa Rhoden, 사진: Kira Perov).

슬로비디오로 만나는 정화의 시간

<빌 비올라>展, 국제갤러리, ~5. 3

바닥에 웅크린 남자가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래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발목을 묶은 밧줄이 그를 끌어올리고 완전히 거꾸로 매달린 그의 몸 위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소리도 없이 느리게 이어지는 화면을 보면 그의 고통이 화면 밖으로 전해지는 듯하다.

빌 비올라의 <물의 순교자>는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지난해 5월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 제단화처럼 선보였던 '순교자 시리즈(흙, 공기, 불, 물)' 네 작품 중 하나다. 물 세례 압권은 또 있다. 깜깜한 실내에 높이 5m짜리 대형 스크린은 8분 20초 동안 관객을 꼼짝 못하게 한다. 검은 액체를 뒤집어쓴 남자가 어둠 속에서 있다. 이어 쏟아지는 물소리. 남자의 몸에 달라붙은 검은 액체가 위로 빨려 올라가더니 곧 폭우로 고조된다. 검은 액체는 붉게 변하면서 남자의 몸을 씻겨나가고 다시 백색 액체가 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온몸을 하얗게 물들인다. 부드러운 안개로 다시 살아난 듯한 남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겨우 안도감이 느껴진다. '죄의 씻김' 혹은 삶과 죽음을 살피보는 정화의 과정 같아 상념에 빠지게 한다.

비디오아트 거장 빌 비올라는 우리를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휩싸이게 한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고통이 인간을 구원한다"면서 "고통에 대응하는 인간의 희생과 인내가 지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 선지식을 공부했다는 그는 "인생은 강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 물줄기에 들어왔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 뱃사공이 극락에 데려가 줄 때까지 우리는 뭔가 남겨야 한다"며 "탄생은 시작이 아니며 죽음이 끝도 아니다"라며 동양적 사고관을 보였다. 유독 물에 집착하며 시간을 느리게 돌리게 된 것은 어릴 적 체험 때문이다. 여섯 살 때 호수에 빠졌는데 바닥에서 위를 보니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새로운 세상이 느껴졌고, 너무나 아름다운 초록빛 풍경에 밖으로 나가기가 싫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인생에는 보이는 것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이라는 테마가 느린 시간 속에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최근 2년간 작업한 7개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슬로모션으로 아주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화면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며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¹⁾

글 박현주 아주경제 문화부장, 미술전문기자. 날마다 작품을 보고 작가를 만나며 느낀 '미술의 힘'을 전하며 대중을 미술관과 화랑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바나컨텐츠, 국제갤러리